

□ 정부시책 □

산업자원부, 테크노파크 입주업체 지원강화

내달부터 테크노파크(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결과를 사업화 할 때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등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받는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결과를 사업화 할 때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산업기술기반조성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기술개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테크노파크 시험 생산시설이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돼 공업배치법상의 공장 건축면적과 건축법상의 용도지역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테크노파크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기업·학교 연구시설과 금융·행정기관 등 입주지원기관을 제외한 시설은 테크노파크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산자부는 국유지에 조성되는 테크노파크의 경우 연간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 임대

기간은 최고 20년까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현재 조성된 6개 테크노파크간 초당 신문지 3만장을 전송할 수 있는 2.5Gbps급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 단일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여기에 지역정보망·특허정보망을 접목, 6개소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산형을 한국형테크노파크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용어 해설

▲테크노파크 = 대학·연구기관·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특정지역의 기술혁신과 기술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학·연의 연구·개발자원을 집적시킨 단지로 연구개발, 정보교류, 창업보육, 시험생산 등에 시너지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현재 미국·독일·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선 테크노파크가 기술혁신과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 창업의 산실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의 수적인 면에서 독일이 160개로 가장 많고 미국 133개, 일본 78개, 프랑스 53개이며 중국도 53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7년말 인천 송도, 경기 안산, 대구 경북대, 경북 영남대, 광주 전

남 첨단산업단지,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을 테크노파크로 지정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7,218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99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정부와 16개 시·도가 매칭펀드방식으로 공동조성하여 시·도별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99년도 지원규모는 총 7,218억원(정부지원액 3,962억원, 지자체 확보액 3,256억원)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금년지원액의 83%인 6,000억을 상반기중에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정부지원액 3,310억원을 시·도에 배정함으로써 시·도에 따라 빠르면 4월부터 상반기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자금의 용자조건은 시설자금은 8억원

한도내에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한도내에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용자되며, 용자금리는 7.5% 이내에서 시·도별로 결정하게 된다.

특히 금년에는 무역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구조조정사업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하여온 구조조정자금을 수출업체, 무역업체, 재해업체, 지역특화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방자금의 '99년도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 '99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지 원 사 업	'99 지원규모	지 원 대 상
구 조 조 정	6,220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 경영안정자금 등
입 지	230	아파트형공장 건축비 및 입주자금
유 통 구 조 개 선	233	시장시설개선, 공동창고설치, 점포시설 개선
시 장 재 개 발	168	시장재개발, 재건축자금
특 별 지 원 지 역	386	특별지원지역입주기업의 공장용지 매입, 시설자금 등
합 계	7,218	

● '99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시·도별	지원규모 (억원)	신청접수기간	문 의 처 (전화번호)	비 고
서울	(800)	1. 20 ~ 자금소진시	서울산업진흥재단 T. 3155-8340~4	'98 이월자금
부산	291	3. 2 ~ 자금소진시	기업지원과 T. 051-888-3105	
대구	556	3. 15 ~ 자금소진시	중소기업과 T. 053-429-2732	
인천	573	3. 2 ~ 자금소진시	기업지원과 T. 032-440-2872	
광주	297	매월 1 ~ 15일	중소기업과 T. 062-224-4651	
대전	280	2. 1 ~ 자금소진시 7. 1 ~ 7. 10	중소기업과 T. 042-250-3243	
울산	130	매월 1 ~ 10일 (자금소진시)	중소기업과 T. 052-229-3138	
경기	1,530	매월 1 ~ 10 (자금소진시)	중소기업지원과 T. 0331-249-4628	
강원	508	연중 수시	중소기업지원과 T. 0361-251-3318	
충북	334	3. 21 ~ 자금소진시	기업지원과 T. 0431-220-3237	
충남	307	3. 2 ~ 자금소진시	기업지원과 T. 042-220-3222	
전북	235	3. 22 ~ 5. 31	산업정책과 T. 0652-80-3223	
전남	660	3. 16 ~ 자금소진시	중소기업과 T. 062-226-1942	
경북	276	3. 9 ~ 자금소진시	중소기업과 T. 053-950-324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단 명부」 발간

중소기업청은 경영기술지원단원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고급전문가를 직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단 명부」를 발간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경영과정의 애로사

항을 자문하고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고급인력들로 구성된 경영기술지원단을 '96. 8월부터 본청 및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영기술지원단은 현재 532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전문분야별로는 경영분야 69명, 금융 74명, 세무·회계 47명, 인력·노무 40명, 환경 16명, 창업 25명, 특허·법률 9명, 무역·판로 60명 및 기술·품질분야가 19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사, 품질관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도 257명이나 된다.

동 책자는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직접 선택하기 쉽도록 대전·충남경영기술지원단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및 경남 그리고 제주 경영기술지원단 순으로 각

지방경영기술지원단별, 전문분야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또한, 동 책자에는 개인별로 전문분야, 성명, 나이, 학력, 주요경력, 상담(지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 및 소지한 자격증까지 상세하게 수록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동 책자를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각 지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및 각 지역 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중소기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